

막 오른 국제농업박람회...전남이 ‘K-농업’ 미래 이끈다

29일까지 나주시 전시·체험·포럼 행사
전남 쌀 ‘새청무’ 4개국 2천t 수출 협약
글로벌 판매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2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새청무’가 4개 국과 2천t 규모 수출 협약을 하는 등 박람회 첫 날부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한 외교 사절단과 해외 바이어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함께 축하했다.

식전 공연으로 펼쳐진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는 농업의 생명력과 협동을 북의 울림으로 표현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엄동균 작가의 VR 드로잉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해 기후 변화와 기술 혁신, 농업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보여줬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조성 및 보급형 AI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전남이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영록 지사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알렸으며 주요 내빈과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견 ‘스팟(Spot)’이 함께 한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씨앗을 생명의 물로 짙은 티우며 빛과 지구

로 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자 관람석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또한 홍보대사 송가인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 열기를 더했다.

이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선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새청무’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영국, 프랑스,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4

개 국과 2천t 규모의 수출협약도 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각국의 유통망을 활용한 현지 판매 확대와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남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판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실질

적 비즈니스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29일까지 7일간 나주에 위치한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박람회는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농업박람회’로 꾸며진다. 행사장은 ▲상생마당전 ▲농업미래전 ▲농업산업전 ▲비즈니스전 ▲힐링치유전 등 5개 테마로 구성돼 전시와 체험,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조성됐다.

24일 ‘2025국제농업박람회 WFT25 Agri-Food Tech 포럼’에선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27일 ‘글로벌 스마트농업 AI비전 포럼’에선 다양한 국내의 스마트농업과 AI 적용 기술 활용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28일에는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산업발견 국제학술심포지엄’, ‘2025 국제 커피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김영록 지사는 “AI로 혁신하고 생명을 키우는 K-농업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농업을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황경아 남구의원, 내일 광주대서 출판기념회

‘내일은 남구’ 12년 의정 활동 담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황경아(사진) 광주 남구의원이 12년간의 의정 성과 등을 담은 ‘내일은 남구’ 출판 기념회를 연다.

황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의정 생활을 풀어낸 ‘내일은 남구’ 출판 기념회를 진행한다.

출판 기념회는 저자 사인회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 저자 소개·인사말, 내빈 소개, 축하 말씀, 저자와의 대화, 기념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된다.

황 의원은 제 7·8·9대 남구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제9대 전반기 의장과 제 7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협치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호평 받았다.

현재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사단법인 기본사회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남구 주민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수줍게도 제 삶과 지난 12년의 의정활동을 담은 책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남구의 미래를 남구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道, 긴급복지 지원 국비 17억 추가 확보

전남도는 23일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국비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올해 9월 기준 1만1천가구, 2만1천384명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58억5천만원, 지난해에는 2만1천가구에 185억원을 신속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 해소와 가정 해체 예방에 기여했다.

추가 확보한 국비 17억원은 이달 중 시·군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문인 북구청장 “AI산업 광주·전남 상생 협력해야”

“광주 R&D 허브·전남 에너지 거점화”

문인(사진) 광주 북구청장은 2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대해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인 5국3특과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 통합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북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와 전남은 제조업 계층을 펼치는 무한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플러스 세 계층을 해야 하는 협력과 통합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첨단3지구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가 어렵게 돼 아쉽지만 실망하거나 좌



절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하게 지역 소외를 운운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북구청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전남의 전력자급률은 200% 이상인 반면, 광주는 95%에 불과하고 부지나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전남이 더 우월하다”며 “광주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지만 잠재력이나 여러 여건들을 볼 때 전남이 더 우월해 삼성SDS의 선택을 받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북구청장은 “중앙정부와 당에 대한 화풀이식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는 에너지가 풍부한 전남도가 선정되도록 돕고, 인적 인프라와 대학이 많은 광주에는 AI R&D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북구청장은 또 “국가AI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AI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이 신뢰를 회복해 상생하고 AI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시·도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북구청장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통해 대통령 임기 초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며 “시·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이고 함께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새로운 천년의 전라도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市-4개 연구기관 ‘배터리 해외인증 시험기관 지정’ 맞손

광주시가 지역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4개 지역 연구기관 및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과 손잡고 해외인증 시험기관 지정에 나섰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지역 연구기관 4곳,

TUV라인란드코리아㈜와 배터리 해외수출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4개 연구기관 관계자, 프랭크 마이를 주트너 TUV라인란드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변은진 기자



한진,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세상을 이끈 80년을 넘어 다가올 100년을 향해-

HANJIN GROUP